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일본 축산업 현황 파악과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 출장 목적:
 - 가. 일본 가고시마현 축산업 현황 및 브랜드화 실태 파악
 - 나. 일본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조사
 - 다. 가고시마현 축산물 가격동향 및 가격안정제도 조사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 출장국가: 일본
 - 방문기관: 가고시마현 농정부 축산과, 가고시마대학 농학부, 남주농장, 가고시마 흑돈생산자협의회, JAPAN FARM
- 출장 기간: 2009년 11월 3~6일(3박4일)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농업관측정보센터	초청연구원	김원태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일정	주요활동내역	비고
11월 3일	-	이동
11월 4일	· 鹿児島大学 농학부	· 축산물 가격동향 및 가격안정제도
	· 鹿児島県 농정부 축산과	· 축산업 현황 및 수급안정사업 · 축산물 브랜드화 실태 및 수급현황
	· 鹿児島県흑돈생산자협의회	· 가고시마흑돈의 생산 및 유통현황
11월 5일	· 南州農場	· 양돈사양
	· JAPAN FARM	· 대표적인 일본 축산기업
11월 6일	· 鹿児島県 EON	· 소포장 축산물 가격조사
	-	귀국

○ 주요 출장 결과

1. 일본 축산현황

- 일본의 축산 주산지인 북단의 북해도와 남단의 규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년 사육호수가 감소하는 반면 규모화의 진행에 따라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기준 일본의 젓소 사육규모는 150만 마리로 그 중 55%인 82만 마리가 북해도에서 사육되고 있음. 도치기현, 이와테현, 구마모토현 등이 각각 3%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젓소 경산우 마리수는 99만 마리 수준이며 북해도가 49만 마리로 약 5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고기소는 화우, 홀스타인계열의 육우, 화우와 육우의 교잡종 등 3종으로 분류됨. 일본의 고기소 역시 북해도가 최대의 주산지로 일본 고기소 사육규모 292만 마리 중 18%인 53만 마리가 북해도에서 사육되고 있음. 그 뒤를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등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고기소 중 홀스타인계의 육우를 제외한 화우는 약 18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이 35만 마리(18%)로 최대 주산지이며 미야자키현 28만 마리(14%), 북해도 19만 마리(10%) 등을 점유하고 있음.
 - 화우 비육우는 81만 마리 수준으로 가고시마현이 13만 마리(16%), 미야자키현 10만 마리(12%), 북해도 5만 마리(7%) 등이 사육되고 있음.
 - 화우 번식암소는 68만 1천 마리 수준으로 가고시마현 13만 5천 마리(20%), 미야자키현 10만 5천 마리(16%), 북해도 7만 2천 마리(11%) 순으로 사육되고 있음.
- 돼지는 약 99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 134만 마리(14%), 미야자키현 91만 마리(9%), 이바라키현 66만 마리(7%), 치바현 64만 마리(7%) 순으로 사육되고 있음.
 - 모돈수는 약 94만 마리로 가고시마현 14만 마리(15%), 미야자키현 8만 7천 마리(9%), 치바현 6만 5천 마리(7%) 등이 사육되고 있음.
- 산란계는 1억 7,820만 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바라키현 1,260만 수(7%),

치바현 1,250만 수(7%), 아이치현 995만 수(6%), 가고시마현 967만 수(5%) 순으로 사육되고 있음.

- 육계는 1억 714만 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 1,921만 수(18%), 미야자키현 1,839만 수(17%), 이와테현 1,541만 수(14%) 순으로 사육되고 있음.

표 1. 일본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전국	현별 순위					비고
		1위	2위	3위	4위	5위	
젖소 (마리)	1,500,000	북해도 823,200 (54.9)	도치기 55,900 (3.7)	이와테 47,700 (3.2)	구마모토 43,400 (2.9)	치바 41,100 (2.7)	가고시마(14위) 17,300 (1.2)
육용우 (마리)	2,923,000	북해도 534,900 (18.3)	가고시마 376,200 (12.9)	미야자키 297,900 (10.2)	구마모토 147,400 (5.0)	군마 111,600 (3.8)	
화우 비육우	809,900	가고시마 131,100 (16.2)	미야자키 95,500 (11.8)	북해도 53,700 (6.6)	사가 42,700 (5.3)	구마모토 39,100 (4.8)	교잡종 제외
돼지 (마리)	9,889,000	가고시마 1,340,000 (13.5)	미야자키 914,500 (9.4)	이바라키 659,200 (6.8)	치바 645,300 (6.6)	군마 619,400 (6.4)	
산란계 (천마리)	178,208	이바라키 12,598 (7.1)	치바 12,489 (7.0)	아이치 9,952 (5.6)	가고시마 9,665 (5.4)	히로시마 8,688 (4.9)	종계 제외
육계 (천마리)	107,141	가고시마 19,214 (17.9)	미야자키 18,388 (17.2)	이와테 15,409 (14.4)	아오모리 6,105 (5.7)	도쿠시마 4,466 (4.2)	

주: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統計」 「食鳥流通統計」 (2009년 2월 1일 현재)

- 2007년 기준 일본의 고기소 도축두수는 120만 마리로 북해도 24만 마리(22%), 가고시마 10만 마리(8%), 미야자키현 8만 마리(7%) 등을 점유하고 있음.
- 고기소 중 화우 도축두수는 약 45만 마리로 가고시마현 7만 7천 마리(17%), 미야자키현 4만 7천 마리(11%), 구마모토현 2만 5천 마리(6%) 등을 점유하고 있음.
 - 도축된 화우 중 거세우는 24만 7천 마리 수준으로 가고시마현이 4만 2천 마리(17%), 미야자키현 2만 4천 마리(10%), 구마모토현 1만 6천 마리(6%) 등이 도축되었음.
 - 화우 암소 도축두수는 20만 마리 수준으로 가고시마현 3만 5천 마리(17%), 미야자키현 2만 3천 마리(11%), 야마가타현 1만 1천 마리(5%) 순으로 도축되었음.

- 돼지는 약 1,627만 마리가 도축되었으며 가고시마현 187만 마리(12%), 미야자키현 139만 마리(9%), 이바라키현 112만 마리(7%), 군마현 108만 마리(7%) 순으로 출하되었음.
- 계란은 258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치바현 18만 5천 톤(7%), 이바라키현 18만 2천 톤(7%), 가고시마현 16만 7천 톤(6%), 아이치현 13만 7천 톤(5%) 등이 생산되었음.
- 육계는 6억 2,283만 마리가 출하되었으며 가고시마현 1억 1,994만 마리(19%), 미야자키현 1억 1,172만 마리(18%), 이와테현 9,650만 마리(16%) 순으로 도계되었음.

표 2. 일본 축산물 출하량(2007년)

	전국	현별 순위					비고
		1위	2위	3위	4위	5위	
우유 (kg)	8,007,417	북해도 3,794,892 (47.4)	도치기 324,123 (4.0)	치바 278,881 (3.5)	군마 278,566 (3.5)	구마모토 258,932 (3.2)	가고시마(18위) 93,540 (1.2)
육우 (마리)	1,198,906	북해도 238,127 (21.6)	가고시마 100,531 (8.4)	미야자키 79,193 (6.6)	구마모토 67,081 (5.6)	도치기 53,231 (4.4)	
화우	447,666	가고시마 76,932 (17.2)	미야자키 47,362 (10.6)	구마모토 25,323 (5.7)	사가 25,023 (5.6)	미야기 20,000 (4.5)	
돼지 (마리)	16,267,631	가고시마 1,871,834 (11.5)	미야자키 1,388,763 (8.5)	이바라키 1,181,425 (7.3)	군마 1,077,310 (6.6)	치바 1,040,347 (6.4)	
계란 (톤)	2,583,292	치바 183,034 (7.2)	이바라키 181,572 (7.0)	가고시마 166,792 (6.5)	아이치 137,368 (5.3)	히로시마 116,139 (4.5)	
육계 (만마리)	62,283	가고시마 11,994 (19.3)	미야자키 11,172 (17.9)	이와테 9,650 (15.5)	아오모리 3,764 (6.0)	북해도 2,978 (4.8)	

주: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物流通統計」 「鶏卵流通統計」 「食鳥流通統計」 「日刊酪農乳業速報資料特集72」

2. 가고시마 축산현황

- 가고시마현은 젓소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사육규모가 일본 5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축산 주산지임.

- 2009년 기준 가고시마현의 젓소 사육호수는 299호로 전년보다 26호(8%)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17,300마리로 전년보다 500마리(8%) 감소하였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57.9마리로 전년보다 3.1마리(5.6%) 증가하였음.
- 경산우 사육두수는 1만 1,700마리로 전년보다 100마리(0.8%) 감소하였음.
- 육용우 사육호수는 1만 3,500호로 전년보다 600호(4.3%)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37만 6,200마리로 전년보다 8,900마리(2.4%) 증가하였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27.9마리로 전년보다 1.9마리(6.0%) 증가하였음.
- 암소 사육두수는 13만 4,700마리로 전년보다 2,700마리(2.0%) 증가하였고, 화우 비육우는 13만 1,100마리로 전년보다 5,400마리(4.3%) 증가하였지만 육우 비육우는 3만 300마리로 전년보다 3,800마리(11.1%) 감소하였음.
- 돼지 사육호수는 810호로 전년보다 16호(1.9%)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는 134만 마리로 전년보다 8천 마리(0.6%) 증가하였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1,654.3 마리로 전년보다 41.7 마리(2.6%) 증가하였음.
- 모돈수는 14만 400마리로 전년보다 1만 8,300마리(15.0%) 증가하였음.

표 3. 가고시마현 축종별 사육동향

젓소, 육용우: 마리
돼지, 닭: 천마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
젓소	사육호수	412	399	382	353	325	299	92.0
	사육두수	20,200	20,400	19,800	18,400	17,800	17,300	92.0
	호당두수	49.0	51.1	51.8	52.1	54.8	57.9	105.6
육용우	사육호수	16,300	15,800	15,100	14,500	14,100	13,500	95.7
	사육두수	349,100	350,000	352,800	359,300	367,300	376,200	102.4
	호당두수	21.4	22.2	23.4	24.8	26.0	27.9	106.0
돼지	사육호수	982	947	926	883	826	810	98.1
	사육두수	1,378	1,398	1,396	1,385	1,332	1,340	100.6
	호당두수	1,403	1,476	1,508	1,569	1,613	1,654	102.6
산란계	사육호수	267	221	202	193	185	162	87.6
	사육수수	11,069	10,273	10,251	10,458	10,132	9,665	95.4
	호당수수	41,547	46,484	50,748	54,187	54,768	59,660	108.9
육계	사육호수	354	355	354	357	345	331	95.9
	사육수수	18,351	18,706	18,301	18,707	17,206	19,214	111.7
	호당수수	51,539	52,693	51,698	52,401	49,872	58,048	116.4

자료: 農林水産省 「畜産統計」 「食鳥流通統計」(2009년 2월 1일 현재)

- 산란계 사육호수는 162호로 전년보다 23호(12.4%) 감소하였고 사육수수는 966만 마리로 전년보다 79만 마리(4.6%) 감소하였으나, 호당 사육수수는 5만 9,660 마리로 전년보다 4,892 마리(8.9%) 증가하였음.

- 육계 사육호수는 331호로 전년보다 14호(4.1%) 감소하였고 사육수수는 1,921만 마리로 전년보다 201만 마리(11.7%) 증가하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5만 8,048 마리로 전년보다 8,176 마리(16.4%) 증가하였음.
- 2007년 기준 가고시마현 축산물 생산액은 2,343억엔으로 농업총생산액의 5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육용우 816억엔(34.8%), 돼지 712억엔(30.4%), 육계 495억엔(21.1%), 계란 212억엔(9.0%), 젓소 90억엔(3.8%), 기타 16억엔(0.9%)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3. 가고시마흑돈 브랜드화사업

- 가고시마현 돼지 출하두수는 면역력 저하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와 돼지췌코바이러스 등 새로운 질병에 의해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에 의해 9월 이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표 4. 가고시마 돼지 출하두수 추이

단위: 천마리,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6월)
2,204	2,228	2,049	1,975 (99.5)	1,967 (99.6)	1,872 (95.2)	1,850 (98.8)	998 (112.0)

주: ()는 전년대비 실적(%)임

- 가고시마 흑돈 출하두수는 1980년대의 고도성장기와 미식열풍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6년 이후 배합사료 가격의 급등과 경기침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5. 가고시마 흑돈 출하두수 추이

단위: 천마리,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5.4	124.8	279.0	452.0 (105.9)	486.0 (107.5)	454.0 (93.4)	404.0 (89.0)

주: ()는 전년대비 실적(%)임

- 가고시마 흑돈의 브랜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1990년 발족한 가고시마 흑돈 생산자협의회임. 가고시마 흑돈의 약 60% 이상이 협의회 소속 생산계열(189농가)에 의해 생산되며 나머지는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음.

- 가고시마 흑돈은 동경도매시장에 생체로 출하되는 월 15두 가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고시마현 내에서 도축·가공되어 부분육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흑돈은 일반 돈육으로 구분되어 유통됨.
- 가고시마 흑돈은 1996년 협의회가 브랜드 확립과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작성한 「사양지침」에 의해 사육되고 있음. 협의회 「사양지침」 이외에도 각 생산계열마다 고유의 「사육지침」이 존재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00년에 작성된 가고시마 흑돈의 브랜드 산지지정 기준은 가고시마 브랜드 확립운동의 기본 방침에 기초하여 흑돈 브랜드의 산지지정 방침과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3.1 가고시마 흑돈 산지지정 방침

- 브랜드 산지지정의 범위는 가고시마현 내 전역으로 함.
- 브랜드 산지지정을 원하는 자는 가고시마현 흑돈 생산자협회의 생산계열 및 특별회원으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 생산자협회가 발행한 가고시마흑돈증명서의 사용 및 회수실적이 명백할 것
 - 산지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수속에 대하여
 - 신청: 지정을 희망하는 생산계열은 브랜드 산지지정요건에 규정된 브랜드 산지지정 신청서를 가고시마 브랜드 추진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심사: 생산자협회에 브랜드 산지지정 기준에 기초한 산지지정 및 지정 취소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회를 설치하고 심사원은 생산자협회 회장이 지명함.
 - 지정: 본부장은 생산자협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신청자가 브랜드산지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브랜드산지로 지정할 수 있음.
 - 취소: 본부장은 생산자협회 회장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계열이 산지지정 기준의 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산지로서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2. 가고시마 흑돈 산지지정 기준

- 흑돈 생산자는 생산자협회 회원일 것. 사양상황은 생산계열 등의 대표자가 생산자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가고시마 흑돈은 생산자협의회 회원이 가고시마현 내에서 생산·비육, 출하한 흑돈으로 원칙적으로 현내 식육처리장 등에서 처리된 것이어야 함. 현 이외에서 처리할 경우 산지와 품종의 특징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식육위생 검사소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협력을 얻어 별도 양식의 의거한 확인 결과를 생산자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고시마 흑돈은 비육후기에 고구마를 10~20% 첨가한 사료를 60일 이상 급여할 수 있으며 출하일령은 생후 230~270일령으로 함. 사료성분 고구마의 급여량 등 비육후기의 급여사료 내용은 생산자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할 것.
- 생산계열 등과 지육·부분육 출하업자간 매년 연간출하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연간 출하실결과 다음 해 출하계획을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할 것.
- 생산계열 등은 지육의 품질검사체제를 정비하고 합격된 지육을 가고시마 흑돈으로 출하할 것.
 - 지육 중량은 65~80kg을 목표로 함.
 - 등지방 두께는 1.3mm 이상을 목표로 함.
- 증명서는 생산계열 등의 책임아래 지육·부분육 등 출하시에 출하업자가 확실하게 첨부하도록 함. 산지지정 이후에 적정하고 확실한 브랜드마크를 획득하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
- 생산계열 등은 출하업자를 통해 출하된 흑돈에 첨부된 증명서를 판매점·요리점 등으로부터 80% 이상 회수하여야 함. 매월 회수실적을 다음 달 말까지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3. 가고시마 흑돈에 관계된 등록상표의 사용

- 등록상표로서 가고시마 흑돈 증명서, 가고시마 흑돈 미니스티커의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는 가고시마흑돈 브랜드 산지지정을 얻은 생산계열에 한함.
 - 출하업자를 통하여 출하된 가고시마흑돈 중 정육 발송에 한함.

4. 가고시마 축산물 가격안정사업

4.1. 돼지가격안정대책사업

- 양돈경영에 있어 배합사료가격의 급등이나 급격한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돼지가격차액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
- 사업시행 주체는 (사)가고시마축산협회이며 돼지 1마리당 320円の 자조금을 적립하고 있음. 320円은 농가 계약마리수에 대해 국고보조금 80円, 생산자적립금 180円, 가고시마현 보조금 60円으로 구성되며 2009년 가고시마현 가격안정사업 예산액은 96,053천円임.
- 가격차보정에 관계된 주요 지표
 - 지역보증가격: 2009년 기준 475円/kg(2008년보다 10円 인상됨)
 - 지표가격: 가고시마현 3개 식육센터 중등급 이상의 가중평균가격
 - 보정액: 지표가격이 지역보증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지육중량을 곱한 액수(단, 한도액 이내로 제한됨)
 - 보정방법: 매일의 보정액을 계산한 후 매월 통합하여 교부하고 있음.

표 6. 가고시마현 양돈 보증기준가격

단위: 円/kg

	1992	1994	1995	1997	2000	2001	2004	2008	2009
지역보증가격	405	405	385	385	385	385	385	465	475
한도액	15	10	35	50	35	①	②	③	④

- ① 4~9월 5円, 10~12월 25円, 1~3월 10円
- ② 4~9월 5円, 10~12월 40円, 1~3월 10円
- ③ 4~9월 10円, 10~12월 45円, 1~3월 15円
- ④ 일본 정부와 협의 중

4.2.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

- 일본의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은 크게 전국적인 제도인 전국 계란가격 안정기금·전일본 난가 안정기금과 개별 현 사업인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전국 계란 가격 안정 기금·전일본 난가 안정 기금

- 계란 생산 및 출하의 전국적·계획적인 조정을 통해 계란가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계란생산자의 손실을 보정함으로써 계란 생산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양계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사)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全農系), (사)전일본난가안정기금(全鶏連系)이 주관하고 있음.

- 표준거래가격은 농협연의 도쿄, 오사카에 있는 계란판매소와 기금이 지정한 판매소에 있는 판매가격의 가중평균가격에 의해 산정되며, 보정기준가격은 기금이 평의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뒤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됨.
- 보정단가: (보정기준가격 - 표준거래가격) × 90%
- 2009년 기준 적립금 부담구분
 - 통상적립금: 생산자 4.00円/kg, 계약회원 1.75円, 일본 정부 0.85円 등 총 6.60円/kg
 - 특별적립금: 가격이 높은 월에 311~316円(1円/kg), 316~321円(2円/kg), 321~326円(3円/kg), 326~331円(4円/kg), 331円 이상(5円/kg) 적립
 - 생산자 별도납부금: 신규가입 생산자 기준 4.60円

표 7. 일본 계란 보정기준가격 추이

단위: 円/kg

	1990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4~6월)	2008 (7~)	2009
보정기준가격	160	163	159	163	162	166	185	191	191

2) 가고시마현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

- 전국 단위 계란가격안정사업의 생산자적립금 일부를 조성하여 양계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고시마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계)와 가고시마현 계란판매농업협동조합(전계련계)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임.
- 2009년 가고시마현 예산액은 28,266천円으로 전국 단위 계란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계인을 대상으로 1kg당 0.253円을 지원하고 있음.

4.3.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

- 육계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계가격안정대책사업의 적립금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가 사업주체이며, 2009년 가고시마현 예산액은 108,632천円임.

- 축산협회는 계약출하조합과 육계가격차 보정에 관한 기본계약(3년간) 및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정적립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4분기마다 정해진 기준가격을 당해 4분기에 매일 기준거래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계약출하조합에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음.

○ 가격차보정에 관계된 주요 지표

- 보정기준가격: 육계의 생산조건, 수급사정 등으로부터 육계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함(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설정).
- 표준거래가격: (다리살 도매가격×0.52)+(가슴살 도매가격×0.48)
- 보정액: 계약수량에 표준거래가격과 보정기준가격의 차를 곱한 금액을 교부함.
- 보정한도액: 표준거래가격의 추이 및 보정재원 등을 고려하여 보정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음.

표 8. 가고시마현 육계 보정가격 추이

단위: 円/마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정기준가격	475	475	458	430	430	430	430
표준거래가격	453	433	443	420	489	506	-
보정한도액	8.5, 3	6.5	6.5	6, 2.3	6	10	10

주 1) 2003년 보정한도액은 4~12월과 1~3월의 수치임.

2) 2006년 보정한도액은 4~7월과 8~3월의 수치임.

○ 2009년 기준 적립금 부담구분

- 생산자 1.17円/마리, 출하조합 1.17円/마리, 현 0.91円/마리, 총 3.25円/마리

4.4.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

- 육용송아지의 생산자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등 육용송아지의 생산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육용우 생산경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국의 주요 축산시장에서 지정된 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합리화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가고시마현 축산협회와 생산자보급금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육용 송아지 생산자에게 당해 평균매매가격의 산정기간 내에 판매 또는 보유한 육용 송아지 두수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제도임.

○ 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 주요 지표

- 농림수산성 장관 지정시장: 전국 108개 시장, 가고시마현 14개 시장
- 송아지 지정조건 : 흑모화우종 204~310kg, 홀스타인종 220~310kg, 교잡종 220~310kg
- 평균매매가격: 품종별 전국지정시장의 월평균가격(농림수산성 관보고시)
- 보증기준가격: 「육용송아지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정해진 가격
 - 흑모화우종 310,000円, 기타육우 204,000円, 젖소 116,000円, 교잡종 181,000円
- 합리화목표가격: 「쇠고기 국제 가격동향, 육용우 사육비, 육용송아지 생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정한 가격
 - 흑모화우종 268,000円, 기타육우 142,000円, 젖소 83,000円, 교잡종 138,000円

○ 보급금제도의 재원조달

- 보증기준가격과 평균매매가격의 차액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합리화 목표가격과 평균매매가격의 차액은 국고 1/2, 가고시마현 1/4, 생산자 1/4 등 가고시마현 축산협회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함.

○ 흑모화우종 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290,000円일 경우

- 보급금=보증기준가격-평균매매가격(310,000円-290,000円=20,000円) 지급

○ 평균매매가격이 250,000円으로 합리화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의 차액(310,000円-268,000円=42,000円)+ 합리화목표가격과 평균매매가격의 차액의 90%(268,000円-250,000円=18,000円×0.9=16,200円)를 합산한 58,200円이 보급금으로 지급됨.

5. 남주농장

- 1976년 8월 양돈업자 5명이 1,124만円을 투자하여 남주농장을 설립한 후 1982년 카노야시에 식품가공공장 설립, 식육을 기초로 각종 식품가공판매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 根占町の 根占농장과 野尻野농장, 田代町内之牧농장에서 양돈(흑돈), 양우(흑모화종) 사업을 시작하였음.
- 현재 종업원 240명, 연 매출액 48억円 규모의 일본 5대 양돈사업소로 발전하였으며 4개의 생산농장과 1개의 meat 센터, 카노야 식품가공장,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음.

- 농업생산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생산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여 안전·안심한 식료품을 생산한다는 경영이념을 확립하고 있음.
- 양돈부문 생산농장
 - 佐多本場: 육돈과 모돈·육성돈 생산농장으로 9만 평 규모에 모돈 3,200마리(흑돈 200마리), 상시사육두수 4만 1천 마리, 연간 출하두수 6만 2천 마리, 육성돈 1,100마리를 생산하고 있음.
 - 根占농장: 흑돈비육농장으로 6만 평의 농장에서 흑모돈 150마리, 상시 사육두수 3,500마리, 연간 출하두수 5,000마리를 기록하고 있음.
 - 田代농장: 흑돈 GP농장으로 6만 3천 평의 농장에서 흑모돈 100마리, 상시 사육두수 600마리 규모이며, 소속농가에 흑모돈을 연간 400마리 공급하고 있음.
- 양우(養牛)부문 생산농장
 - 野尻野농장: 흑모화우 생산농장으로 3만 6천 평에서 어미소 410마리, 상시 사육두수 730마리, 비육소 출하두수 400마리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田代비육농장: 흑모화우 비육농장으로 흑돈GP농장과 같은 장소에서 상시 사육두수 600마리, 연간 출하두수 380마리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남주농장은 2008년 말의 경기침체 이후 돼지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돈수를 조정하지 않고 꾸준히 비육돈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는 적자경영이지만 대규모 농장들은 양돈산업의 위기 이후 소규모농가의 폐업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사육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생산성이 떨어지는 흑돈을 사육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돼지가격이 390円/kg 인데 반해 흑돈은 560円/kg을 수취하여 수익성이 높기 때문임.
- 남주농장은 자돈단계에서 귀에 칩을 삽입하여 돼지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두당 300円の 비용이 추가되지만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일본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종임.
 - 현재 일본 양돈산업에서 생산이력제에 의해 출하되는 돼지는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유통업체도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향후 생산이력제 물량이 30% 이상을 점유하면 차별화 전략에 의해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작년까지 쉼코바이러스와 PRRS가 만연하여 폐사율이 20% 가까이 이르렀으나 백신의 개발로 질병을 극복해가고 있음. 현재의 MSY는 20두 이지만 향후 목표는 25두로 설정하고 있음.
- 남주농장에서 비육된 돼지는 자체 식육처리센터에서 도축되고 있음. 도축 물량비중은 남주농장 80%, 외부 반입 20% 수준이며 식육처리센터에서 납품하는 상사의 요구 -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됨 -를 작업농장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남주농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는 30개소의 상사에 출하하고 있으며 상류와 물류가 분리되어 있음. 식육처리센터에서 전표는 상사로 전송하지만 돈육은 상사가 원하는 점포에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운송은 운송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 돼지사육에 필요한 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어 코스트가 높은 편이지만 안심·안전 돈육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으므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6. JAPAN FARM

- 1969년 가고시마현 大崎町에 30억円の 자본금으로 설립된 JAPAN FARM은 치킨사업, 양돈사업, 미니돼지사업, 사료생산 등의 사업으로 연간 250億円, 종업원 1,015명을 거느린 미쓰비시그룹 계열의 일본을 대표하는 축산기업임.
 - 연간 매출액 중 치킨사업이 200億円(계육 150億円, 치킨가공 30億円, 부산물 20億円)으로 가장 큰 사업부문이며 양돈사업이 50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대표 사업은 치킨사업으로 종계농장 17개소, 비육농장 83개소 등에서 연간 3,800만 마리를 출하하여 일본 연간 출하수수 6억 2천만 마리의 6.5%를 점유하고 있음.
 - 치킨사업 부문 중 생산부문은 종계단지 17개 농장, 孵卵단지 2개 부화장, 大崎비육단지 16개 농장, 垂水비육단지 27개 농장, 預託비육단지 40개 농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치킨제조부문은 KFC생산인정을 획득한 大崎공장과 垂水공장에서 연간 3,500만 마리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쿠라지마どり’ 브랜드로 판매됨.

- 양돈사업은 (사)일본중돈등록협회의 인증을 획득한 특별우량지정중돈장에서 상시 사육두수 10만 마리, 연간 출하두수 15만 5천 마리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모돈수는 8,800마리이며 연간 MSY는 20두 상태임. 110동의 돈사가 모두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질병에 취약한 실정임.
 - 생후 24~25일 후 이유단계로 넘어가며 일반적인 사육보다 조금 빠른 30~35kg시 비육단계에 진입함.
 - 고구마소주 발효시 발생하는 부산물로 액상사료를 만들어 급여하고 있으며 비타민함유량이 높고 사료섭취량도 증가시켜 사양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자체 도축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니혼햄 소속의 일본 food packer에서 도축되어 니혼햄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음.
- 미니돼지사업은 중량 40kg 수준의 크라운계 미니돼지를 의학 실험동물로서 제공하거나 각종 실험을 수탁수행하는 사업으로 상시 사육두수는 500마리이며 연간 600~700마리가 판매되고 있음.
 - 실험용 동물로서 일반 돼지에 비해 생산성이 50% 수준에 불과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음.
 - 미니돼지 1마리당 가격이 20만~30만円인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며 미래의 신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임.
- 사료생산은 닭과 돼지의 가축분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5년 전부터 연간 계분 6만 톤, 돈분 6천 톤을 이용하여 3개 공장에서 연간 4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50ha의 우영농장에 공급하고 있음.
 - 우영은 가축분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질소의 시비요구량이 많아 가축분뇨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여 소액의 수익도 얻고 있음.
 - 연작장해 관계로 매년 10ha는 휴경하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가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으며 축산단체, 중간상인, 거래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참고로 사육규모와 출하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음.

7. 돼지고기 부분육 판매가격

- 가고시마현의 대형유통업체 중 EON 가고시마점의 돼지고기 부분육 판매

가격을 조사하였음.

- 가격표시방법은 100g 단위로 가격을 제시한 후 포장중량과 가격을 명시하고 있음.
- 포장형태는 스티로폼 용기에 돼지고기를 넣고 랩핑한 상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임.
- 최근 일본에도 로스문화가 보급되어 전시된 물량 중 대부분을 로스 및 샤브샤브용이 차지하고 있음.

○ 면담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鹿兒島대학	교수	李哉滋	81-099-285-8625
鹿兒島県	중소가축계장	筵平昌則	81-099-286-2111
흑돈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	有村裕之	81-099-286-3224
南州農場	이사	越前清美	81-0994-26-4141
JAPAN FARM	총무과장	西牟田 淳	81-099-476-0235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 일본은 전국 34개 도현에 육돈 생산출하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 대상농가의 1년간 번식돈수, 종부돈수, 분만모돈수, 생산자돈수, 이유자돈수, 출하돈수, 총 사육돈수, 월령별 사육돈수, 배합사료 판매량, 출하예정돈수 등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6개월의 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가고시마현 축산과 공무원은 이러한 예측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돈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될 때 과거 5년간의 동경도 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기금지출 규모를 판단하고 기금재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의 축산물 수급계획은 연구원의 축산관측을 통한 3개월 이후의 사육돈수와 가격전망과 한국육류수출입협회의 월별 출하돈수 및 지육가격 전망, 수입량 및 재고량 추정 등이 있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의 월별 출하돈수 및 가격전망은 비교적 양호한 적중

를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량 및 재고량 추정은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축산관측사업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현재의 표본농가 이외에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고량 조사,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예상수입량 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 축종별로 맞춤형 가격안정대책과 송아지 생산안정대책,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등 다양한 생산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WTO에서 허용한 De-minimis(최소허용보조)에 의거 총생산액의 10% 이내에서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원확보방법은 정부사업으로 도입하거나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양돈수급위원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그 이자로 재원을 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운영은 일본의 지역 육돈 생산기금 안정 사업처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표적인 육계전문기업과 돼지사육농장을 방문한 결과, 대규모 자본의 축산업 진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었음.
- 긍정적 측면은 대규모 자본은 생산시설, 도축시설, 유통라인 등을 일관경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빠르게 산지에 전달하여 산지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임.
- 부정적 측면은 일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들은 사료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폐업하거나 기업형 농장의 위탁사육농가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임.
- 따라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시 중소기업 규모 미만의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고 이후 규모화된 농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가 단위에서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고급사양기술 개발 및 습득, 고급육 생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등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특이사항

- 일본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축산물 소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감소에 의해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고급육인 화우의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흑돈, 닭고기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는 낮은 등급의 축산물 소비도 감소하고 있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9월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연평균 21%이 하락한 상태로 2009년 10월 13일부터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책이 발효된 상태임.

- 가고시마현에는 제주도에서 도비의 지원을 받아 90일간 선진농장 연수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체류하고 있었음. 남주농장 관계자와 면담시 동석한 북제주 동부양돈영농조합 김태우 이사는 남주농장에서 양돈사양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었음.
- 김태우씨의 견해에 따르면 양돈 사양관리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것 같지만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함. 일본 양돈업자들은 돼지 사육에 있어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체크하고 기록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배울 점이라고 함.